

[특집 · 언어와 사회]

계층별 언어 변이

황선혜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Think like a wise man but communicate in the language of the people.

(William Butler Yeats: 1865~1939)

1. 들어가는 말

언어는 인간의 삶과 모습이 닮아 있다. 어쩌면 가장 가까워서 우리들과 숨 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를 담아내듯이 언어 속에도 인간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각 사회가 소위 계층별로 서로 다른 언어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한 언어공동체(speech community)에서 특정 언어를 공유하고 있을 때, 계층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언어 형태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계층별로 언어사용 양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회가 계층별로 나뉘어 의사소통상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자녀에게 특정 계층의 언어 형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득이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언어와 사회와의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주로 영어권 사회의 예가 인용될 것인데, 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가 다소 미흡하여 우리말에 대한 인용이 부족함을 미리 밝혀둔다.

2. 언어 연구의 사회언어학적 접근

사회언어학에서는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규명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언어의 기능은 정보전달과 함께 언어를 통한 자기 정체성의 표현, 사회적 소속감을 통한 자기 생존의 전략,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 유지를 지속하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 예컨대, 두 사람이 만나면 대화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존재나 관계의 확인을 하게 된다.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전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적당히 무시하고 혼자 가려고 결정하면 말 걸기부터 시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통하여 적어도 함께 가는 동안 상대방과 동반자 역할이라는 관계 설정을 하게 된다. 이때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지역적, 사회적 배경이 묻어나는 것을 무심코 알게 된다.

이것은 대화 참가자들의 사회적 배경이 이들의 언어 사용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나 문맥, 또는 대화참가자에 따라서 화자들이 다르게 말하는 것도 알게 된다. 화자는 특정 어휘나 말투를 사용한 언어 행위를 통하여 단순히 말의 의미 그 이상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사회언어학에서는 대화의 사회적 맥락을 연구하고 언어가 사회의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지를 연구한다. 즉,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밝히고,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들을 연구한다.

3. 언어 변이 연구의 의의

언어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지역 단위를 '언어공동체'라고 한다. 의사소

통의 기회를 갖고 하나의 언어를 공유하면서 언어 목록(language repertoire)이나 변이형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들은 언어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 일련의 규범들을 사용하는 규칙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이 의사소통의 관계망이 언어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커다란 대도시, 국가, 지역 등이 한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집단이 되기도 한다. 언어공동체는 우리에게 언어 속에 내재하는 변이를 관찰할 수 있는 단위를 제공해 준다.

언어공동체 내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언어를 보면 한 언어라도 다양한 상황이나 화자에 따른 언어 변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관찰된다. 지역적 특성에 의한 언어 변이가 그 하나이고, 사회적 계층에 의한 언어 변이가 그 다른 하나다. 언어는 한 개인의 언어도 아니며 진공상태에서 사회와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언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함께 공유하는 사회집단의 지리적,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게 되었다. 특히 이 공동체 내에 사회적 층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계층화의 결과가 언어 변이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때 언어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동질성을 반영하여 타 집단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기기도 하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자기와 같은 출신 지역이나 자기가 속한 사회적 계층을 표방하는 언어(변이형)를 말할 경우 심리적 동질감을 가지게 된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거리감이나 적대감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행위이며 이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표현해 낸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 공동체 내에서 존재하면서 그 사회의 계급, 인종, 성별 등으로 인하여 생긴 언어의 차이는 그 사회상을 반영하게 된다. 여기서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사회계층적 변이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언어 변이 연구에서는 언어가 사회계층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변이형을 선택하는지 밝히게 될 것이다. 이때 특정 계층의

언어 사용자는 자신의 변이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대변하게 되며, 이들의 전략적 언어 사용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변이형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일관되기 보다는 자의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그러므로 인간 고유의 언어능력은 오히려 언어 변이 현상을 통하여 언어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4. 국어의 사회계층적 변이

국어에서의 사회계층적 언어 변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는 않다. 언어 태도, 성별 특성, 대우법 연구, 호칭 체계 등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계층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다. 미루어 짐작건대, 과거 조선 시대의 신분제도에 의한 양반-상인 계층의 언어 특성은 현재의 국어의 경어법과 무관하지 않음을 생각할 수 있겠다. 사회적 계층을 보여주는 대우법 체계, 호칭 체계에 대한 연구 등이 사회언어학적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계층적 언어 변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고 하겠다.

국어에 대한 사회언어학 연구는 홍연숙(1991)에서 여러 사회언어학적 요인 가운데 하나로 사회계층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홍연숙(1994)은 서울말에 대한 연구, 남북한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서울말의 모음의 합병과 평양말에서의 보존 또는 합병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사회계층'의 서울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에]와 [애]의 구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나, 나이가 많을수록 구별이 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양말에서는 합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귀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20대의 나이에도 [에], [애] 구별을 정확히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상 대화속에서 단모음화 현상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예컨대, '출퇴근', '귀여운', '상쾌한', '분위기', '명확한' 등의 이중모음이 단모음화 되는 현상은 대학

졸업 수준(중산층 이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30년 후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이주행(1999)은 우리 사회를 서구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음운 변화를 주도하는 그룹을 중류 계층으로 보고 있다. 7개의 계층(상류 1계층, 중류 3계층, 하류 3계층)으로 분류하여 음운, 어휘, 문장에 관한 계층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어두의 경음화는 전체 계층과 연령별로 고르게 퍼진 현상으로서, 예컨대, ‘줍다’가 [쭙다], ‘좁’을 [쭙]으로 발음한다. 빈도수로는 중류 계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20대 이하에서 두드러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ㄷ]음 첨가에서 [갈려구], [배불르다], [몰르지] 등은 상류 계층보다는 하류 계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타 특기할 사항은 ‘레저’, ‘리더’, ‘비전’ 등의 외국어 혼용이 중류 계층에서 더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시 사회적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남녀 호칭 연구를 하나 들어보자. 김성현(1997)은 여대생의 남자 선배 호칭이 ‘형’에서 ‘오빠’로, 그리고 ‘선배’로 호칭 사용 경향이 변해가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격변기인 90년대를 지나가면서 호칭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반영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계층별로 가장 심리적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가족 간의 호칭인 ‘형’이나 ‘오빠’는 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선배’로 변하고 있다. 이것은 ‘선배’의 호칭 사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남녀의 구분보다는 사회계층 간의 상호 교류에서 사회적 교류망에 더 무게를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가족 간의 호칭에서 벗어나 개인별로 공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변이형이 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계층 간의 언어 특성은 현재의 국어의 경어법과 관련하여 대우법 체계, 호칭 체계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변화까지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과의 교류 관계가 빈번해지면서 외국어의 유입,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영어의 위치와 영어 사용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사회언어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계층적 변이와 영어의 변이형

사회계층은 우리나라 과거의 신분제도, 인도의 카스트제도, 영국의 작위제도 등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초고속 무선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계층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 다소 희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대사회에서도 언어의 사용은 앞서의 설명처럼 상황 유동적이어서 변이형이 다수 사용된다. 흔히 복장이나 호칭, 경어법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 계급의 층위화는 인간의 제도권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라고 생각된다.

언어 연구에서 사회계층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지표가 사용된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은 계층의 분류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분할 때는 그 사람의 직업, 수입, 교육 정도, 거주 지역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때 소위 상류 계층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표준어에 더 가깝다고 여기고 하층민들의 언어 혹은 지리적 방언을 비표준어로 인식하기도 한다. 표준어가 과거 사전과 책 등 문서를 통해 문자화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갖지 못하는 방언 등은 상대적으로 표준어보다 뒤떨어진 하층민의 언어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언어가 하층민이 사용하는 언어이든 아니든 그 언어공동체 내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표준어의 개념도 역시 사회적 인식에 바탕을 둔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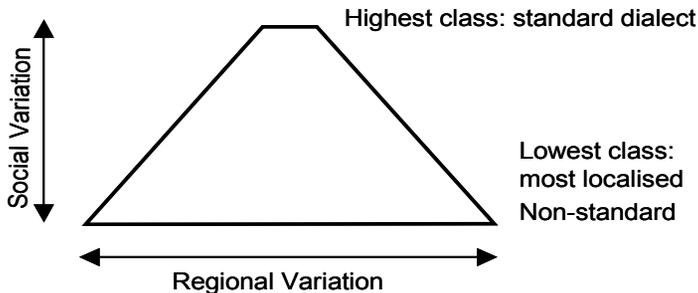
사회계층적 차이에 의하여 생긴 방언은 어휘, 발음, 문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20세기 초반에는 영국의 상류사회에서는 소위 ‘영국표준발음’이라고 하는 ‘용인된 발음’(RP, received pronunciation)을 배우고 사용했으며 이것은 영국 사회의 최상류층의 교육을 받은 특권층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흔히 ‘Queen’s English’로 불리기도 한다. 후에 용인된 발음은 BBC에 의하여 널리 보급되면서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 사회계층적 변이형이 된다. 예컨대, 우리가 영국을 여행하게 되면, 노동 계층의 사람들로부터는 서로

다른 발음의 'grass'를 많이 듣게 될 것이나, 사회계층이 상류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변이형의 숫자는 줄어들게 된다. 오늘날에 와서는 상류 계층에서도 용인된 발음 이외의 발음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Trudgill 1983).

오늘날에 와서 용인된 발음이 사회적 변이형(발음)인 것처럼 표준 영어 또한 사회적 방언이다. 표준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언'이다. 즉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에서도 신문, 방송 등에서 사용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표준 영어는 용인된 발음보다 변화에 더 유연하다. 따라서 교육받은 상류층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 영어는 변이형 사이의 차이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인다. 표준 영어 화자는 다음의 문법적 변이가 허용된다고 생각한다.

- a) I've not washed the dishes yet today.
- b) I haven't washed the dishes yet today.

위와 같은 예는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 호주 영어 사이의 차이이지만, 모두 표준 영어의 범주에 속하는 영어 변이형으로 간주한다(Holms 2001). 다음의 그림은 계층별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의 변이형이 상류 계층에서도 일부 허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사회, 지역적 방언의 변이
(출처: Trudgill 1983, 41)

그러나 역시 사회계층이 상류층으로 올라갈수록 변이형의 정도가 줄어들고, 하층민 화자의 경우에는 언어 변이가 지역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Trudgill 1983). 소위 교육 받은 사람들의 표준 방언이 사회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데 반하여 하층민들의 비표준어는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표준어를 상류층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을 말해줄 뿐,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하여 더 열등한 언어라고 할 수는 없다. 일부 사회언어학자는 비표준어의 형태를 ‘일상어’(vernacular)라고 부르고 이 일상어는 부적절한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그 언어공동체의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한다. 그리고 일상어는 가정에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 언어로서 화자들 사이의 결속감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일상어를 사회언어학자들은 언어의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보고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5.1. 계층적 변이와 라보브의 연구

라보브의 연구를 더 자세히 소개해 보겠다. 언어학자들은 직감적으로 언어 현상의 변화 내지는 이상 징후를 느낀다 하더라도 이러한 직감을 실증적 연구 결과로 끌어내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특히 일상어의 모습이 카멜레온처럼 손에 잡히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연구 결과로 보여준 대표적인 학자는 라보브(William Labov)이다. 그는 1966년 뉴욕 시 연구에서 음운 변이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The Social Stratification in New York City”라는 제목의 연구는 사회언어학 연구의 학문적 발판이 되었고, 언어적 자료와 사회적 자료를 비교하여 화자들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언어 사용 패턴을 드러내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뉴욕 시라는 한 지역을 언어공동체 단위로 하여 모음후행 [r] 발음이 뉴욕 시의 사회계층적인 표지(marker)가 된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즉, 모음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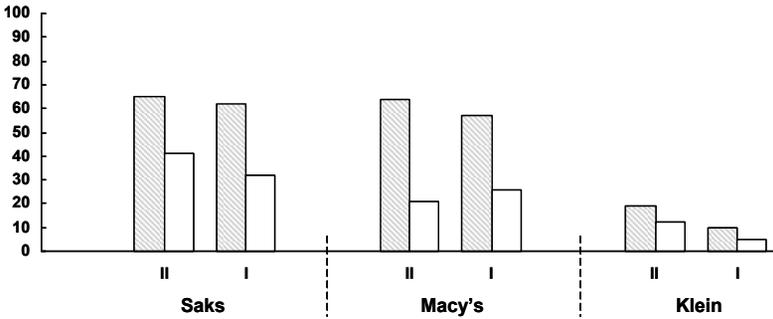
행 [r] 발음이 사회계층에 따라 발음을 달리하고 사용 빈도수가 다르게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이것은 변이형이 화자들의 머릿속에 있으나, 일상어 형태로 사용이 될 경우에 더욱 증화된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방법을 잠시 알아보는 것이 변이형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보브는 뉴욕의 사회계층적 차이를 상징하는 세 개의 백화점을 대상으로 하여 음운 변이형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예측해보고(언어학자의 직감과 경험을) 검증하였다.

- 1) 사회계층이 높은 손님이 주 고객인 백화점일수록 /r/ 발음을 많이 낸다.
- 2) ‘floor’라고 할 때가 ‘fourth’라고 할 때보다 /r/ 발음을 많이 낸다.

라보브는 연구에서 각각의 백화점 점원들에게 ‘Where are the women’s shoes?(여자 신발가게는 어디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 세 개의 백화점은 모두 신발 가게가 4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Fourth floor’를 답변하도록 유도하였다. 물론, 답변을 못 알아들은 척함으로써 목표한 발음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즉, ‘fourth floor’를 거듭 말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모음후행 r’ 자료를 얻어 분석하였는데, 결과는 예측대로 사회적 계층의 변이형으로 생각되는 /r/ 발음의 계층적 유형을 밝혀내었다.

<그림 2>에서는 이 변이형의 사회계층적인 특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발화 상황에 따른 사용 빈도수를 보여준다. 특히, 각 백화점마다 첫 번째 발화(I)보다 두 번째 강조해서 답을 하게 된 발화(II)에서 /r/ 발음이 더 빈도수가 높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사회적 계층이 높은 고객의 백화점 직원일수록 /r/ 발음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계층이 낮은 고객의 백화점 직원일수록 /r/ 발음의 사용은 감소하였다. 뉴욕의 섹스(Saks), 메이시스(Macy’s), 클라인(S. Klein) 백화점은 각각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주로 이용하는 백화점으로서, 백화점의 점원의 언어에서도 사회계층에 따라 변이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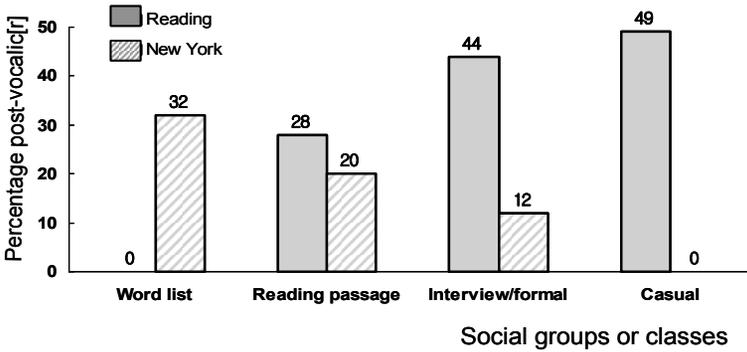


<그림 2> 뉴욕의 /r/ 발음 패턴: 흰 막대(fourth)와 빗금(floor)에 대한 세 백화점 직원의 첫 번째(I), 두 번째(II) 발화
(출처: Labov 1972a, 52)

이 그림을 통하여 라보브는 사회언어학에서 통계적이고 확률적인 방법을 통하여 변이규칙의 연속성(continuum)에 대한 개념을 활용하였다. 어떤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데 범주적 규칙보다 확률적 규칙, 즉 어느 정도로 하느냐를 공식적으로 보여준다. 즉, 변이형 /r/ 발음의 사회계층적 변이형의 분포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통계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언어 현상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흥미 있게 제시하고 있다.

5.2. 계층적 변이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

계층적 변이는 역시 그 사회내의 자의적 인식일 뿐 기타 영어권 국가의 현상과는 큰 차이가 있다. 앞서서처럼 미국 영어에서는 [r] 변이가 /r/의 발음이 상류계층임을 나타내는 권위가 있는 반면에, [r] 변이가 영국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 영어의 모음 뒤에 나오는 /r/의 발음을 적게 할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영어도 /r/이 없는 방언이 더 표준 방언, 즉 권위 있는 형태이며 기타 지역이나 국가별로도



<그림 3> 레딩(Reading, 영국)과 뉴욕(New York, 미국)에서의 모음후행 /r/ 발음
(출처: Romaine 1984,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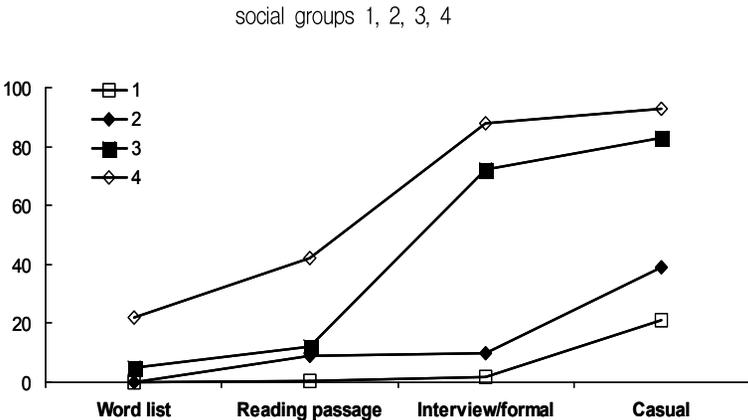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위의 그림을 보면 한 개의 변이형에 대해 서로 상반된 사회계층적 사용 형태가 나타난다.

위의 예를 보면, 뉴욕(미국)에서는 /r/ 발음이 가장 주의를 기울인 발화의 경우(단어 읽기: word list)에, 레딩(영국)에서는 가장 일상적인 경우(casual)에 그 사용 빈도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r/ 발음의 권위에 대한 두 지역의 생각이 다른 것이다. 한 언어가 표준어이며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자의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어떤 언어음이 좋고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r] 발음의 지위가 서로 다른 도시인 영국과 미국에서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영국에서 [h] 탈락에 관한 연구이다. 이 변이형은 교육받지 못했거나 게으른 사람의 표상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영국의 상류계층에서도 *hotel* 또는 *herb*에서 [h] 발음 탈락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변이형이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다거나 낙인이 찍혔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5.3. 계층적 변이와 화체(style)의 관계

사회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말하는 방식은 계층별로 역시 다르다. 트러드길(Trudgill 1974)은 노르위치(Norwich) 사회의 위계 구조를 통하여 사회 계층, 화체, 언어 변이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영어의 /ing/ 발음의 변이형 사용에 있어서 계층별로 분명하게 나뉜다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은 계층, 화체, 변이형 사용에 대한 분포이다.

화체는 그 공식성의 정도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위 그림에서는 단어 읽기(word list), 문단 읽기(reading passages) 등 공식적 화체를 사용할 때는, 모든 사회계층에서 비격식체인 일상어 [ɪn] 발음이 더 적게 나타나고, 표준발음인 [ɪŋ]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일상적 상황에서도 상류 계층에서는 일상어 변이형인 [ɪn] 발음의 사용 빈도는 낮았다. 반면에 하층으로 갈수록 일상적 상황에서 표준형인 [ɪŋ]의 사용 빈도수는 줄고, 표준 발



<그림 4> 노르위치의 일상어 [ɪn]의 화체에 따른 계층별 발음 분포
(출처: Trudgill 1974, p. 92)

음의 빈도수는 낮아졌다. 사회적 계층과 화체에 따라 일상어의 사용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사회계층, 화체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즉, 하류 계층 화자의 발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언어 변이는 비격식체의 화체에서 두루 나타나는 형태인 것이다. 어떤 변이형은 화자의 계층을 구분해주며 한 사람의 발화 내에서는 화체를 구분 짓는다. 위 그림이 보여주듯이, 모든 화체를 통틀어서 하류 계층에서 일상어 /in/ 발음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캐주얼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술집이나 파티 등에서 일상적 화체를 쓰고, 면접이나 공식적 연설을 할 때는 상류 계층의 세련된 그룹으로부터 발화 모형을 배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의 화체로 바꾸어 활용한다.

5.4. 과잉 수정(Hypercorrection)

사회계층과 언어 사용의 형태 사이에는 아주 흥미 있는 현상이 또 있다. 라보브의 뉴욕 연구를 보면 모음 후 /r/ 발음이 민감한 사회언어학적인 변이형으로서 상류 계층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모든 사회계층에서는 일상 대화체에서부터 주의를 더 기울이는 화체로 갈수록 [r] 발음을 정확하게 할 뿐 아니라, ‘과잉 수정’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것은 중류 계층으로 분류되는 화자들이 보여주는 현상으로서, 특히 개별 단어 ‘읽기’에서 발음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과잉 발화에 이르는 것이다. 이 현상은 영어의 ‘He asked for you and I’, ‘between you and I’ 에서도 보이듯이 ‘you and me’를 구조적으로 과잉 수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잉 수정 현상의 원인으로 사회적 신분 상승의 욕구 내지는 자신의 불안정한 문법 능력이 표출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것을 시도하는 계층이 중류 계층이라는 것이 흥미롭게 생각된다.

6. 변이형의 확산: 중류 계층의 일상어

특권층의 언어 형태가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으며 사람들이 모방하려고 하는 현상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어라고 불리는 변이형도 언어공동체 내에 확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컨대, ‘마사의 포도원 (Martha’s Vineyard)’이라는 작은 섬에서 일어난 발음 변이가 한 예이다.

마사의 포도원은 매사추세츠 주 해안에서 약 3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으로서 뉴욕과 보스턴 지역 사람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출입하기가 용이한 거리에 있다. 원주민이 약 6천 명인데 여름마다 섬은 관광객들로 넘쳐나게 되는 곳이다. 자연히 몇 대에 걸쳐서 살아온 섬 주민들은 최근의 이민자들에게 섬이 침략당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Holms 2001, p. 198).

1950년대의 언어 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의 태도는 *light*, *house* 등의 발음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음 상승으로 중설화(centralization)하여 *light*는 *layeet*, *house*는 *heyoose*처럼 발음하는데, 한때 이 발음이 사라지고 있다가 다시 섬 주민들이 그 지방의 가치관과 평화로운 생활양식을 지키려는 충성심을 가지고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변이형의 발음은 미국 영어에서 상류 계층의 권위 있는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섬의 다른 그룹에게도 같은 언어 태도가 확산되고 있다. 포르투갈 이민 그룹, 인디안 원주민 그룹들은 몇 대를 내려오며 정착하고 섬 주민과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해오고 있다. 따라서 언어 변이형이 소위 특권층의 형태를 선호하여 자신의 것을 버리고 상류 계층의 것을 따라간다는 일반적인 현상에 대치되는 경우이다. 그뿐만 아니라 소위 일상어의 형태가 포도원 사람으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암묵적 권위(covert prestige)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 변이형이 확산될 때, 사회적 권위를 가진 변이형은 언어공동체의 상류층의 가장 격식체로 사용되면서 아래 계층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일상

어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비격식체로 사용하면서 확산된다. 비표준어로 생각이 되는 변이형은 확산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호기심 많고 개혁적인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 새로운 변이형을 도입하는데 더 적극적이라고 보고 있다(Bailey 1973).

대체로 변이형의 확산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룹으로부터 새로운 변이형을 받아들인다. 예컨대, 런던 밖의 사람들은 런던 상류 계층의 언어가 권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런던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노르위치의 중간 계층 사람들이 런던의 권위있는 변이형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실제로, *top*과 *dog*의 모음발음은 노르위치에서 용인된 발음 [top]과 [dog]로 바뀌었는데, 특히 중류 계층의 여성들이 이 변화를 이끌어갔다고 보고 있다. 역시 모음후행 [r] 발음도 뉴욕에서 젊은 중류 계층 사람들에게 의하여 소개되어 급격히 확산되었다.

중류 계층의 사람들은 특히 이웃의 지역 노동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언어 형태를 취하는데, 이들은 사회적 지위나 위세보다는 노동자들과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일상어를 취한다. 언어의 새로운 변이형에 대한 태도는 상류 계층이나 하류 계층의 사람들보다 중류 계층에서 더 유연하게 열려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변이형에 자신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역동적인 그룹으로 평가되고 있다.

7. 사회계층적 언어와 인지능력

사회계층에 따른 언어 변이형의 사용은 교육 현장에서 좀 색다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당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촉발시킨 소위 언어 결핍(language deficit)에 관한 보고이다. 1970년대의 언어와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에서 영국의 사회학자인 번스타인(Basil Bernstein 1973)은 영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언어 결핍에 관한 보고서를 썼다.

번스타인에 의하면 노동 계층의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한 이

유는 이들이 중산층 어린이와는 영어를 다르게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면담을 통하여 대화를 해본 결과 노동 계층 어린이들이 질문에 대하여 짧게 단음절어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소수민족의 어린이와 노동 계층의 어린이들은 중산층 어린이들과는 가정에서의 대화 규칙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개별 면접 방식의 시험에서는 가능한 짧고, 단음절로 답변하는 반면에, 중산층 어린이들은 질문에 대하여 길고 자세히 답변하였다. 번스타인의 연구는 이 면담 자료를 근거로 하여 노동 계층 어린이들의 언어적 자원이 '제한적'(restricted)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더 나아가서 번스타인은 이 '제한적 코드'(restricted code)는 어린이의 인지 능력을 한정시키게 되고 그로 인하여 관찰력과 사고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는 부족하나 실제로 노동 계층 어린이들의 학교 성적이 부진하다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번스타인의 연구는 워프(Whorf)의 주장을 담고 있어서 노동 계층의 어린이들의 언어 결핍과 성적 부진의 관계에 개연성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기울일 것이 있다. 그것은 사회언어학자로 하여금 언어와 사고,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통찰력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특히 제한적 코드로 분류될 수 있는 '일상어'(vernacular)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류 계층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 형태라고 하여 부정적인 낙인을 찍으면 그 언어 사용자들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가지게 된다. 어린이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도, 그들의 성장 배경에 따라 대화 규칙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방언 간의 차이는 피상적일 뿐이며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연구가 지속되었다.

8. 맺음말

우리 사회에서 언어 변이는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될 때, 다양한 언어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각 사회마다 신분 상승의 욕구가 분출되면서도 사람들의 가장 평범한 일상성 가운데서 언어의 진솔한 모습을 일상어 속에서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서 일상어는 비표준어라고 하여 언어학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으나 뜻밖에도 사회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일상어의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 교류망이 되고 있는 언어공동체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대감을 강화시키는데 자신들의 언어 변이를 사용하고 그 변이형이 점차 널리 사용되는 힘을 얻기도 하였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사회언어학자들의 그간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언어 변화는 사회적으로 상류 계층에서 시작되기 보다는 오히려 중류 계층이나 하위 계층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중류 계층 이하에서부터 새로운 언어 변이형이 시도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Fasold 1990). 언어의 진정한 주인이 언어 사용자들이라고 볼 때, 계층적 언어 변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1) 변이형들에 대한 사회계층적 사용 형태는 자의적이다.
- 2) 변이형은 특정 계층에서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 3) 사회계층에 따라 언어 사용 규칙 또한 다르다.

변이형의 사용에 있어서 화자는 의사소통적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대화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류 계층이든, 하류 계층이든 변이형의 선택, 사용 범위 및 사용 빈도수는 그 언어를 말하는 화자 고유의 독창적 언어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사회적 맥락에 가장 적절하게 화자가 선택하고, 그 언어공동체 내에서 유효하

게 사용되는 언어 변이형이라면 하층민이 선택하는 변이형이라고 할지라도 언어 독창적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언어인 것이다. 이 변이형의 발전이 결국에는 언어 변화에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이주행(1999), ‘한국 사회계층별 언어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7권 1호”, pp. 51~76.
- 김성현(1997), ‘언어 변이의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관한 고찰’, “사회언어학 5권 2호”, pp. 689~704.
- 홍연숙(1991), “A Sociolinguistics Study of Seoul Korean”, Seoul: Seoul Computer Press.
- _____(1995), ‘입말투에 기초한 서울말과 평양말의 사회언어학적 비교연구’, “사회언어학 3권 2호”, pp. 77~100.
- 황적륜 외 공역(1990),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of Language by R. Fasold), 서울: 한신문화사.
- Bailey, Charles-James N.(1973), ‘The Patterning of Language Variation’, In R. W. Bailey & J. L. Robinson(eds), “Varieties of Present-Day English”, London: Collier-Macmillan, pp. 156~86.
- Bernstein, Basil(1973), “Class, Codes and Control”,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Holms, Janet(2001),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2nd ed., Longman.
- Labov, William(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_____ (1972a), "Sociolinguistic Patter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Trudgill, Peter(1974), "The Social Differentiation of English in Norwi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3), "Sociolinguistics: An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Society", Penguin: Harmondsworth.